

사용자 맞춤형으로 진화한

22년형

BESPOKE 큐브™ Air



대한민국 제품혁신상 대상
삼성전자(주)
BESPOKE 큐브™ Air
22년 연속 수상



CHECK POINT →

- 바이러스·세균 증식 방지하는 향균 집진필터
- 강력한 입체 흡입과 스마트 토출
- 생활 공간에 알맞은 청정 성능
- 심플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 직바람·소음 걱정 줄여주는 무풍청정

BESPOKE 큐브™ Air

AI가 직접 관리해 주는 실내 공기

22년형 BESPOKE 큐브™ Air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집 안 공기를 알아서 관리해준다. 새롭게 적용된 'BESPOKE 맞춤형정 AI+' 기능은 전원이 꺼져 있어도 10분마다 실내외 공기 질을 분석, 학습해 오염도를 예측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기기 스스로 집안 공기를 청정하게 해준다. 이 제품에 탑재된 '스마트 절전모드'는 실내 공기 질이 좋아지면 팬 작동을 중지시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과 비교 시 에너지 소비가 최대 32% 감소된다. [참고 : 에너지 사용량 절감 관련 내용 - (1) 시험 방법 : 49.7m² 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 시뮬레이션 (2) 대상모델 : AX53A***** (기존) 대비 AX053B***** (출시 모델)의 스마트 모드 에너지 (3) 시뮬레이션 환경 : 외기 농도 30µg/m³, 실내 PM10 미세먼지 200µg/m³ (4) 시뮬레이션 결과 : 기존 스마트 모드 대비 적산 전력 기준 32% 절감]

향균부터 공간 제균까지, 위생 업그레이드

BESPOKE 큐브™ Air는 '트리플 안심청정'으로 강화된 위생 기능도 갖췄다. 기존의 'UV 플러스 안심 살균' 기능에 구리 향균 섬유로 제작된 집진 필터를 새롭게 적용해 필터 속 향균부터 공간 제균까지 가능해졌다. 22년형 BESPOKE 큐브™ Air는 공기가 꺾이지 않는 직렬 유로 구조인 '하이패스 강력청정'으로 오염된 공기를 후면에서 흡입 후 빠르게 청정해 전면 토출구로 내보낸다. 여기에 삼성만의 독자적인 '무풍청정' 기술도 적용돼 직바람 없이 저소음 청정이 가능하다.

한편 이 제품은 실내 공간 크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정면적 기준 4개 용량(123m²·106m²·70m²·53m²)으로 출시되며,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교체 가능한 전면 패널을 적용했다. 패널은 헤링본과 스트라이프 2가지 패턴에 그레이·딥그린·베이지·이브닝코랄·모닝블루 5가지 색상의 조합으로 출시됐다.



CEO INTERVIEW



이재승
삼성전자(주) DA사업부 사장

소비자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주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홈(BESPOKE HOME)의 다양한 제품들이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가전을 나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 가전 브랜드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비스포크 홈을 선보이면서 소비자의 공간을 취향에 맞춰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 핵심 부품을 평생동안 보증해 오랜 시간 믿고 쓸 수 있는 품질, 인공지능(AI)과 '스마트싱스' 홈라이프를 기반으로 사용 경험에 있어서도 나에게 맞춰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맞춤형 가전을 제안하는 데 힘쓰겠습니다.